

한라포커스 2학기부터 시작되는 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유학’

## “도심 떠나 마을로”... 초등 8개교 시범 운영

학령인구 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 전략 사업 ‘주목’  
‘가족 체류형’으로 전국에서 29가구·45명 참여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도심 지역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공부하는 ‘농어촌 유학’을 본격 도입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에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해 수도권 과밀 학급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지역 소멸 극복”=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2029학년도 초·중·고·특수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매년 5~8%씩 줄어들어, 2029년에는 2024학년도(3만8671명)보다 29.5% 감소한 2만7278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도 원도심·읍면·자율학교는 27명에서 20명, 동지역은 29명에서 21명으로 단계적 조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농어촌 유학사업을 꺼내들었다. 선택한 유형은 ‘가족 체류형’으로 보호자와 함께 해당 지역에 전입해 학생이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제주시 4개교, 서귀포시 4개교 등 총 8개 초등학교이다. 모두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농어촌 소규모학교로, 상당수가 복식학급 편성 위기에 놓여

있었다. 도교육청은 총 31가구를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29가구 45명의 학생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2가구(송당초)는 추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교에서 단일학급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살 곳이 있어야 유학도 가능”...주거 연계 핵심=농어촌 유학의 핵심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다. 도교육청은 유학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 내 유헴 주택을 발굴하고, 마을회나 학교 측과 협의해 빈집 등을 유학생 주거지로 연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주거비와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 경비를 월 단위로 지원한다. 유학생이 1명

이면 월 30만원, 2명이면 40만원, 3명이면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서울지역 학생이 제주로 유학을 올 경우 지원 금액은 각각 60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학은 단순히 전학을 유도하는 것만이 아닌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면서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한 지역부터 사업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걸림돌은 ‘거주 공간’...지자체 협력 필요=다만 농촌 지역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빈집이 부족하다는 점은 유학 확대의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초등 학교 고학년 유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유학을 계속 이어가려면 사업 대상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지

만, 도내 중학교 상당수는 주변에 거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지 않아 연속적 유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심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빈집 정비, 공공 임대 연계, 지역 주택 공급 등 주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학 수요만으로는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 주거 연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신청 초기부터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현재 중학교나 일부 초등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학기 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원활히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현기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제주시 제공

## 우도 오봉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지방시대위 공모사업 뽑혀  
제주시 4년 간 25억원 투입  
노후주택 수리 등 환경 개선

고령인구 비율이 높지만 노후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취약한 섬 우도면 오봉리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우도면 오봉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귀덕1리가 선정된 이후 4년 만의 성과다.

시는 오봉리에 총사업비 24억 7900만원(국비 16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77가구의 노후주택을 집수리하고 ▷방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4개소와 보안등 20개 설치 ▷빈집 리모델링

과 재래식 화장실 철거 ▷주민 공동체 회복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봉리는 전체 주택 278호 중 63.7%가 슬레이트 지붕이고,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3.5%로 이번 사업이 환경개선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철 오봉리 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이 새 단장을 하게 되면 어르신과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관광객들은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오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사업을 통해 오봉리는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과 위생, 생활 인프라 확충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 제주도 ‘민원전문관 제도’ 도입

민원행정 조직 전면 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11일부터 민원행정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자치행정과 민원팀(종합민원실)과 소통청렴담당관 직소민원팀 등 주요 대민 부서를 ‘소통청렴담당관’ 산하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통청렴담당관은 도정 전반에 걸친 민원행정 전략 수립과 제도 운영, 실행 평가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에 바란다’ 등

7종의 온라인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일원한다.

이밖에 고충민원이 잦은 10여 개 부서에 업무 숙련자를 ‘민원전문관’으로 지정해 민원 총괄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특이민원 전담 대응 조직’도 구성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송창윤 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하고, 숙련된 공무원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이동노동자 쉼터 주말 운영 시간 확대

도, 4개소 낮 12시부터 개방... 생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이동노동자 쉼터인 ‘흔디쉽팡’ 주말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설치된 ‘흔디쉽팡’ 4개소에 대해 평일 24시간 운

영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보다 4시간 앞당긴 낮12시부터 개방한다. 쉼터에는 얼음 생수, 쿨토시 등 냉방용품을 비치하는 등 더위에 지친 노동자들이 쉼터를 찾아 언제든 쉴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야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책도 펼친다. 건설 현장, 물류, 통신 장비 설치, 공방·항만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폭염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1만1500개를 오는 18일까지 배부한다. 무더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갈

증을 해소하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이동식 음료차량을 활용한 폭염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제주도는 노동자들에게 생수, 쿨토시, 쿨마스크 등을 나눠주고 안전수칙과 응원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와 전단지를 전달해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일보

1층 임대

전용면적

36㎡

임대 문의

064)750-253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작업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가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개조)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